

“수출·내수 둔화에 경기부진 지속… 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KDI, 3월 경제동향

“경기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중”
세계경기 둔화에 2월 수출 -15.9%
반도체 영향 1월 산업생산 0.8% ↓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다. 수출 감소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고 있어서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국내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며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KDI는 지난 달 우리 경기의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달에는 경기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었던, 지금은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5.9%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급감하고,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도 0.8% 감소했다. 광공업 부진 영향이 컸는데 반도체(-33.9%)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9%로 낮은 반면, 재고율은 120.0%로 높아졌다.

KDI는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일부 심리지표가 개선됐지만 실물 경기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2월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

한 기대감으로 지난 달 72에서 74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BSI는 65로 전월(66)보다 낮아졌다. BSI는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3.9% 감소하고, 건설기성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둔화되며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열달 만에 5%대 상승세를 마감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물가 압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내수 둔화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 실장은 “중국 리오프닝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경기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용접 등 뿌리산업 3년 근속시 1800만원 준다

정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해외 건설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법인택시 ‘선 운행, 후 자격’ 취득 추진

청년이 용접 등 뿌리산업에서 3년 일하면 정부가 1800만원 자산을 만들어 준다.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택시는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차·고급 택시로 전환할 때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6개 업종별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란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먼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우수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시 1800만원을 주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운송업은 택시기사들이 이미 이 잦다는 점을 고려,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운전적성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내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고급 택시로 전환 절차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은 해외 오지에 장기간 파견 근무 간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업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정부는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 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격차 완화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조선업은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등 조선업 상생협약을 맺고, 인력 유입·유지·양성 목적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물류·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늘린다. 인력난이 심한 상·하차 업무,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외국인력(E-9)은 올해 쿼터를 11만명으로 늘려 월평균 1만명씩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 간 협업체를 구성,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한다. 농촌으로 가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 등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 채용한다. 이 중 92만4000명이 상을 올 1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1면 ‘문과생 취업 바늘구멍’서 계속

초등수학 집중반 개설 등 학원가도 ‘수학’ 잡기 나서

◆취업 기회, 대입에 영향… 학원가도 ‘수학’ 잡기

대입은 취업과 직결되는 만큼 이과 강세에 따른 학원가 수학 집중도도 주목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key’는 수학으로 꼽히면서 국어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수학 등급이 높을 경우 유리한 구조를 보였다.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도 ‘초등 수학 집중반’ 개설이 잇따르는 등 ‘수학’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입시 전문 업체인 이투스에도 지난 1월 청솔학원과 강남하이퍼학원 주요 직영점에 수학전문관을 개설했다.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문이나 접수가 제법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하은기자 godhe@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